

# 韓國 精神文化的 斷絶과 繼承\*

金 雲 泰\*\*

<차 례>	
I. 序	V. 開港以後의 精神文化的 展開
II. 古代의 精神文化	VI. 日帝殖民地統治下의 傳統文化 의 試鍊과 解放後의 展開
III. 中世高麗時代의 精神文化	VII. 結 論
IV. 近世朝鮮期의 精神文化	

## I. 序

近來 우리의 國力이 伸張되고 國民의 自信이 高揚됨에 따라 文化的 傳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이 分野에 대한 研究開發 및 擴散의 努力이 廣範하게 전개되고 있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國家의 발전은 물질적인 繁榮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國民精神과 精神文化를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부강하고 훌륭한 國家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古來로 韓民族은 개성적인 特殊性和 合理的인 普遍성을 지닌 特徵있는 精神文化를 발전시켜 왔으며 時代의 進運에 따라 철저히 歷史的인 傳統에 뿌리박고 外來文化와 開放的으로 交流하면서도 이를 主體的으로 受容하고 再創造하여 人類文化에 寄與하여 왔다.

韓民族이 오랜 歷史 속에서 他律과 自律이 交錯되고 여러 苦難과 試鍊을 되풀이하면서도 主體성을 견지해 온 것과 같이 우리의 傳統的인 精神文化的 脈絡도 特殊性和 普遍성이 순환 반복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때로는 斷絶되고 變化되면서도 連綿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제 80年代의 새 歷史段階에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고 正義社會를 具現하여야 할 第五共和國의 과제를 앞에 두고 韓國 精神文化的 進路를 모색하는 見地에서 우리 傳統 精神文化的 歷史的 性格과 體質形成을 理解하고 그 繼續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 精神文化的 여러 측면에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連綿히 繼承되어 오는 傳統文化的 特質도 있는 한편 西歐文化가 流入된 朝鮮末期나 日帝時代를 비롯하여 解放後 새로운 文物制度의 導入, 土地制度의 改革, 6.25動亂의 一大 混亂, 1960年代以後의 産業化에 따른 고도성장과 都市化로 인한 급격한 社會變化 등을 계속 겪어오는 가

\* 本 論은 1982年度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主催 年例 學術大會 (主題: 韓國精神文化研究의 現況과 進路)에 基調講演으로 發表된 것임.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운데 斷絶된 것도 있는가 하면, 새로 形成되어 發展해 온 文化의 特質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韓國 精神文化의 傳統的 基盤의 特質을 살펴보면 멀리 氏族社會의 神話나 民俗 및 固有思想을 源으로 하여 三國時代에는 民族固有文化의 바탕 위에 佛敎의 導入과 그 自主化에로의 轉換이 있었고 高麗時代에는 佛敎文化의 擴大活用은 물론 儒敎의 普及과 아울러 道敎까지 흡수해서 그 傳統文化의 內容을 深化시켰다. 朝鮮時代는 排佛崇儒政策으로 因해 佛敎 대신 儒敎文化가 創造의으로 擴大 活用되고 土着化되어 精神文化의 基調가 되었으며 朝鮮後期에는 基督教의 傳來와 아울러 社會改革理論으로서 實學 思想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開港後의 外壓과 自主의 葛藤이 深化되는 가운데 결국 日帝侵略으로 인한 民族文化의 試鍊과 斷絶을 경험했고 그 상처를 깊이 안은 채 8.15解放과 6.25動亂을 겪으면서 國土가 分斷된 상태에서 外來文化의 활발한 導入과 더불어 南北間의 文化的 異質化가 深化되어 왔을 뿐더러, 動亂으로 인한 人口의 급격한 社會流動化에 뒤이어 60年代 以後 高度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의 導入 등은 오늘의 우리 生活을 傳統文化로부터 隔離시키고 倫理的 無秩序를 自招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民族의 主體性에 대한 각성과 傳統文化에 根據한 精神文化의 啓發이 促求되고 이와 더불어 近來 韓國의 國家發展 또는 近代化에 대한 評價와 民族文化 展開에 있어 傳統遺産의 發掘 및 그 繼承 등의 문제가 學界에서 진지하게 舉論되고 있는 實情이다.

일반적으로 歷史에는 절대적인 斷絶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皮相的으로 극단적인 단절로 보이는 變化 속에서도 연속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觀點에서 해방 후 50年代의 民族意識과 市民意識의 昂揚과 60年代 以來의 高度經濟成長의 背後에는 不死鳥와 같은 우리 민족정신의 底力이 하나의 중요한 原動力이 되었음을 看過할 수 없으며 아울러 어느 시대 어느 歷史展開過程에서도 韓國精神文化의 傳統的 要素가 수행한 역할을 過少 評價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편의상 韓國精神文化의 史的 展開過程을 古代, 中世(高麗), 近世(朝鮮前期, 開港以前) 및 開港以後와 日帝植民地統治下로 時代區分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II. 古代의 精神文化

우리의 傳統的 精神文化의 특색은 우리의 建國神話精神이 대표하는 이른바 「弘益人間」의 理念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部族 또는 部族國家 時代의 集團儀式을 대표하던 蘇塗나 東夷族의 古代文化의 한 대표적인 상징이던 「고인돌(支石墓)」文化 속에서도 그 基로 確認되며 나아가서는 古代 以來 農耕部落共同體의 遺習인 「두레」나 原始氏族社會以來로 傳承된 각종 民主的 遺制와 思想 그리고 圖讖思想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檀君說話라는 우리 民族의 建國說話는 13世紀의 中世國家 段階에서 僧 一然에 의하여 三國遺事에 처음 記錄된 것으로서 一然이 三國遺事를 叙述한 動機는 蒙古의 침략으로 最大의

民族的危機에 직면하자 韓民族의 主體性 危機를 克服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즉 韓民族의 主體的 歷史意識과 民族自主意識을 鼓吹하고 象徵化하는 하나의 體系的 研究로서 古代國家를 整理하여 檀君이 桓雄의 5訓을 宗教의 骨幹으로 하고 5事를 統治의 主幹으로 삼아 祭政一致를 바탕으로 東方의 道德君子國을 세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民族史는 B.C 2333年으로 溯及되며 그것은 中國 堯帝의 即位元年到 해당되고 日本의 建國神話인 神武보다 6世紀가 앞서고 있는 것이다.

建國說話는 비록 이와 같은 動機에서 훨씬 後代의 사람에 의하여 記錄된 것이긴 하지만 그 內容은 우리 民族史의 基本的 特質과 傳統文化의 特色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建國說話 精神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弘益人間的 이룬바 「人間을 크게 利益되게 한다」는 思想은 本質的으로 親和思想이며 人間尊嚴思想으로서 이것을 그 說話에서 示唆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인 神人思想이나 敬天思想과 연결시켜 볼 때 이는 人間은 神과 같이 존귀하고 모든 人間은 하늘(天) 앞에서 한결같다는 人本的 平等思想, 또는 「하나」[一], 「같다」는 精神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sup>(1)</sup> 또한 檀君說話의 政治的 特徵인 敬愛政治의 特質은 결국 天和 君은 人和 民을 사랑하고 이에 대하여 人和 民은 天和 君을 공경한다는 相關的 親和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建國說話에 나타난 弘益人間的의 說話나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韓國政治傳統의 親和性인 性格은 한편으로 우리의 固有한 文化傳統이던 古代社會의 고인돌[支石墓]文化 등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으며 나아가 古代社會에 있어 하나의 統合理念이던 蘇塗思想을 통하여 더욱 활발하게 계승 발전되어 왔다. 즉, 支石墓 文化는 우리 東夷族들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文化의 한 形式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이미 民族統一 이전부터 文化的 血緣的 地理的인 單一性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시 數百人 數千人이 동시에 동원되어야만 自然의 巨石을 가져다 萬年不敗의 共同墳墓를 이룰 수 있었던 支石墓 文化에서는 그대로 協同的 忍耐와 團結로 뭉쳐진 民族의 親和力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親和力의 기반이 되는 單一民族으로서의 結合力은 三韓中心의 蘇塗思想에서도 그 性格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蘇塗는 每年 씨뿌리기가 끝나거나(5월) 농사일이 끝났을 때(10월) 鬼神에게 제사하여 함께 즐기던 集團 共同儀式이었던 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精神文化史的 意味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天神에 제사하는 敬天思想을 통하여 모든 成員들을 경건하게 하고 또 歌舞和樂을 통한 愛民(人)精神과 和樂한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 調和를 이룰 수 있게 한 共同體的 親和力이며, 둘째는, 蘇塗를 위하여 流民을 포함한 누구나가 國邑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던 自由主義的이고 民主的인 性格이

(1) [一]의 精神에 관하여 靜庵趙光祖는 “君與民本乎一而”… 聖人以天地之大光民之衆爲一己(靜庵集雜論)라고 하였고

또한: 天人合一論에 관하여 世宗實錄第三十二卷 世宗 8年 5月 丁酉修十五 “嗚乎天之與人本一氣矣 民本邦本食足民天…” 등 참조

며, 세계는, 蘇塗行事に 일단 成員으로 참여하면 비록 逃亡者라 하여도 돌려 보내지 않고 받아들였다. 政治의 統合力, 네제는, 善行과 潔白에 대한 祈求와 盟誓를 통한 純潔意志, 그리고 다섯째로, 蘇塗는 일종의 神聖不可侵의 禁忌聖域으로서 集團의 統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古代的 司法機能과 아울러 그 成員들의 行動과 感情을 規律하는데 寄與한 神聖的인 政治內 正義觀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支石墓文化에 나타난 共同體的 親和力이나 또 蘇塗와 같은 集團儀式에 나타난 共同體 精神은 비단 新石器時代나 三韓만이 아니라 古代 여러 부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祭天行事로서의 高句麗의 東盟, 扶餘의 迎鼓, 東濊의 舞天, 百濟의 郊天 등이 蘇塗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것들은 우리 民族의 일종의 古代 信仰形式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民族固有的 宗教意識이나 文化遺産으로 또는 우리 民族의 傳統精神이나 文化意識의 脈絡을 통하여 계승되어 온 것이다.

이렇듯 우리 겨레는 같은 東夷文化圈 위에서 同質的인 文化를 形成하고 單一民族으로서의 歷史的인 基盤 위에서 統一民族形成을 위한 活力으로서 親族共同體的 統合力과 親和力을 培養해 왔으며 이 三國統一의 歷史的 活力의 主體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花郎이었다. 우리는 新羅 花郎들의 共同體精神에서 우리 民族의 固有的 傳統 精神文化의 特性을 찾아 볼 수 있고 다시 儒, 佛, 仙(道) 三教를 모두 融合하고 있는 玄妙한 우리나라의 道로서 風月(즉 花郎)을 강조하였던 崔致遠의 사상등에서 우리 文化의 特質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本來 花郎은 「邦國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모름지기 風月道를 먼저 해야 한다(王又念, 欲興邦國 先須風月道…)」(三國遺事, 卷3)는 강한 國家意識에서 출발되었고, 따라서 花郎精神의 基底가 된 孝悌忠信은 理國의 大要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의 花郎五戒는 철저한 國家意識과 親和的인 共同社會倫理로 나타난 것으로서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設生有擇 등 五個德目を 生活信條로 삼았던 것이다. 이 花郎精神은 統一新羅에서는 六頭品들의 國家意識이나 文化意識으로 또 高麗에서는 對異民族 抗爭을 위한 主體意識으로, 그리고 朝鮮에서는 선비들의 愛民愛族精神이나 民族運動 등으로 계승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겨레는 古代民族이나 部族時代로부터 獨自의이고 同質的인 文化共同體的 基盤을 갖고 그 文化遺産을 계승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傳統的 遺産은 對內的 統合力과 對外的 主體性으로서 뒷날 그것이 三國의 民族的 統一을 가져오는 促進的 活力이요, 原動力이 되었으며 三國統一以後에도 高句麗에 대한 舊疆恢復運動이나 百濟에 대한 遺民懷柔와 같은 親和力을 가질 수 있었고, 다시 對唐抗拒나 倭寇擊退 등 主體性을 견지하고 國難을 克服할 수도 있었던 것이며 나아가서는 中世國家에 있어서는 六頭品(또는 豪族)精神으로서 民族的 再結合의 統合力이 되었고 近世朝鮮에 있어서는 이른바 선비(士林)精神으로서 民族的 自主性과 主權概念을 갖는 近世國家의 推進力으로서 繼承되었던 것이다.

한편 古代社會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文化的 遺産으로서 「두레」를 들 수 있겠

다. 「두레」는 農耕部落共同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農樂行事로서 部落共同體的 集團結合의 基礎가 된 것이었다. 본래 韓國의 古代社會는 社會構造의 基本單位로서 家族이 中核을 이루고, 나아가서 氏族, 部族과 같은 共同體本位의 자유스러운 體質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이 점은 바로 「희랍」이 우리와 그 部族聯盟的 國家形成이나 半島的 風土 등의 類似性에도 불구하고 商業的 社會構造를 가지고 개인 本位의 民主主義로 發展하였던 것과 크게 對照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희랍」에서 個人主義的으로 자유롭게 政治에 참여하는 民主主義가 成長한데 비하여 韓國의 古代政治에서는 公共性 또는 公益性을 강조하되 그것은 個人이 그 속에 내몰린 集團全體에 대한 忠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象徵으로서 대략 父權의 家長이나 族長이 中心이 되는 集團主義的 權威體系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家長이나 族長들의 權威主義는 모든 집단의 成員들을 各歸屬集團의 公益을 위하여 統合시킬 수 있는 강한 統合力 즉 集團志向的 忠誠心이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릇 三國時代의 貴族들은 본래 部族國家時代부터의 傳統을 가지는 地方支配의 勢力基盤을 가지고 있었고, 이 勢力基盤의 유지는 三國의 始祖神話에서 보는 바와 같이 王神族(왕족), 地祇族(왕비족)과 같은 選民思想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專制王權이 強化되고 骨品制度가 확립되면서부터는 일반 貴族이 가지는 선민사상은 오히려 退色하고 대신 王者의 지배권위는 天帝之子로서의 권위 또는 帝王의 王道思想으로 승화되어 간 것이다. 특히 佛教思想은 新羅政治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바, 法興王에서 眞德女王까지의 王名은 모두 불교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른바 佛教王名時代를 성립시키리만큼 新羅佛教는 古代國家의 지배자와 결합되었던 것이며, 여기서 王即佛이란 觀念에서 일종의 王道思想이 나타나는 동시에 국왕의 지배로운 寬仁政治, 나아가서는 일종의 책임정치 사상도 움튼 것이다. 그리고 불교 왕국의 理想을 具現하고자 하는 王名時代가 끝나고 전제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太宗 武烈王때부터 漢式諡號時代(654~935)가 시작되면서부터 유교 정치이념이 형성되었다.

이와같이 祭政一致的 정통 선민사상, 불교사상 및 소박한 유교이념 등이 고대귀족정치문화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면서 귀족정치의 민주적 운영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부족 중심의 귀족주의로 인한 권력의 多元化 傾向과 土地의 私有化, 兼併에 따르는 지방의 土豪 귀족세력의 성장 그리고 이들 지방 귀족과 中央의 명문 귀족간의 연결 경향 등은 勢道形成을 促求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력 형성은 권위주의 성향과 더불어 어느 의미에서 中央과 地方間의 民主的 社會基盤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三國은 다같이 地政學의 位置에서 對外 國際關係上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을 일찌기 의식하였고, 地政學的 背景이 國家運命에 밀접히 관계된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나머지 강렬한 自主意識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高句麗는 중국의 內政 分裂政策이나 以夷制夷政策의 실패를 일찌기 간파하고 이에 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중국의 분열을 주체적 입장에서 이용하려는 적극적 태세를 갖추었으므로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한

좋은 정신적 전통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古代社會 以來로 우리 겨레가 간직하여 온 民間信仰의 未來觀 내지 圖讖思想에 관하여 간략히 言及하고자 한다. 韓民族이 祭政一致를 바탕으로 東方의 道德君子國을 세우고자 하는 일종의 理想的인 建國理念은 檀君說話에서 나타나고 있다. 三國時代에는 佛敎가 들어오자 佛敎的 理念國家 또는 彌勒淨土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또는 宿願 같은 것이 支配層 사이에 널리 엮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古代社會에서 未來觀은 주로 圖讖思想을 통해서 表現되어 왔으며, 그것은 當時의 統治權力的 維持와 變動을 正當化하는 일종의 政治的 이데올로기로서 당시 民衆信仰과 運動에 至大한 영향력을 行使하고 있었을 뿐더러, 政治生活의 未來의 吉凶禍福과 盛衰興亡에 대한 豫言 또는 徵兆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古來의 土俗, 巫俗信仰과 함께 겨레의 政治的 思想과 行動에 큰 影響을 미쳐 온 것이다. 또 圖讖은 占星(天文), 卜筮, 神話, 地理, 風水地理 등과 더불어 陰陽五行, 道術 기타 造作에 의해 表現되는 것이 보통이나, 高麗時代에 와서는 대개 天文, 地理, 固有信仰, 佛力信仰과의 合作에 의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이와 같은 圖讖思想은 後代의 鄭鑑錄, 許生傳의 說話, 姜甌山의 進新開闢思想, 東學의 開闢思想 등으로 繼承되어 韓民族이 간직한 傳統的인 理想主義理念 및 進步的 革新思想으로 脈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古代社會의 精神文化의 傳統에 관하여 概略해서 論하였다. 建國神話와 「弘益人間」의 理念, 그리고 蘇塗, 支石墓 및 「두레」등 傳統的 行事를 통하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特質은 첫째로, 우리 겨레가 傳統的으로 지니고 있는 共同體的 親和의 原理와 親和性을 바탕으로 하는 大同主義이며, 둘째로, 人間을 神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하늘(天) 앞에서 한결같이 愛敬하는 人本的 平等思想과 正義를 追求하려는 潔白한 性癖 또는 根本主義的 正義意識이며, 셋째로, 敬天敬愛 政治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權威主義的 上下間의 相關的 調和思想이다. 그리고 넷째로 原始氏族社會 以來로 傳統 속에 각종 民主的 遺制를 통하여 우리는 두드러진 民主的 傳統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自主性과 自由主義 또는 抵抗精神의 發動을 理解할 수 있으며, 다섯째로는, 圖讖思想이나 陰陽論 또는 易學論을 통하여 未來의 思想이나 革新的인 改革思想 또는 進步主義도 한 文化의 命脈으로서 連續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겠다.<sup>(2)</sup>

### III. 中世 高麗時代의 精神文化

中世 高麗는 半島에 統一된 民族國家를 形成하면서 地方의 土豪를 懷柔糾合하여 中央集權的인 封建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그 對外的인 國難克服을 위한 鬪爭을 통하여 民族意識을 成長시켰던 時期에 해당하며, 이 韓國의 中世는 西歐나 日本의 中世가 封建的 地方分權

(2) 韓國政治文化의 傳統의 特性 pp.160~178 參考. 金雲泰外 共著 韓國政治論 全訂版 收錄 서울, 博英社, 1980.

을 기초로 割據하여 多元的 社會로 分裂하면서 富國強兵과 國利民福을 競合한 것과는 對照가 되는 中央集權的 郡縣制로 統一된 王國을 形成한 것이다. 그리고 高麗時代는 統一民族史의 正統을 이으며 마침 後三國을 克服함으로써 民族의 再結合을 이룩하는데 우리 政治文化의 傳統인 親族共同體의 親和力과 玄妙之道와 儒佛仙을 融攝한 花郎精神같은 民族形成의 結合力을 분명히 발휘한 時期이며, 나아가서는 옛 舊疆인 高句麗의 後裔임을 자처하고 그 領域을 옛 舊疆으로 擴大回復하려는 民族의 意志도 歷歷히 가지고 있었기에 北進政策이 初期부터 여러 形態로 계속 推進되기도 했다.

이렇듯 高麗時代는 前時代의 文化的 傳統의 命脈을 繼承하여 強韌한 民族意識의 成長과 더불어 文化的 폭넓은 主體의 受容能力을 발휘했다. 즉 佛敎와 儒敎를 導入해서 創造的으로 擴大活用하였으며 다시 道敎思想까지 導入해서 그 文化內容을 深化시켰다. 특히 高麗時代에 보이는 思想的 深化나 文化受容能力의 伸張은 祖上들로부터 계승된 傳統의 認識이나 民族의 主體運動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外來文化受容에 있어서의 主體의 姿勢나 寬大하고 實情에 맞는 점진적 改修方式은 高麗의 國是인 訓要十條中 第四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東方이 옛부터 中國을 사모하여 모든 文物禮樂과 그 制度를 따라왔다. 方向이 다르고 土壤이 다르며 또 人性이 각기 다르니 반드시 구차하게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저 箕子는 금수의 나라로 風俗이 다르고 言語가 다르니 衣冠制度를 그들에 따르지 않도록 삼갈 것이다.”…(第4條)라고 하여 文化的 主體性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文化的 主體性이 기반이 되어 高麗의 佛敎는 철저한 護國佛敎로서 宗教의 自己國籍을 뚜렷이 하였고, 道敎의 要素도 民族的인 蘇塗思想에 同化되어 高麗를 위한 爲國的인 風水圖讖思想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文化的 主體性은 거듭된 國難克服의 試鍊속에서 強韌한 民族精氣로 昇華되고 強力한 民族의 信念體系로 結晶되었으며 그것은 歷史記述에 있어 三國遺事記錄에서 檀君紀年을 中國 最初의 王朝인 堯와 同等하게 취급한 것이나 契丹의 蕭遜寧이 侵入했을 때의 徐熙의 自主의 外交나 護國의 소원으로 完成된 八萬大藏經의 刊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社會正義와 均福의 理想은 衡平과 愛民, 重民의 政治制度와 法制를 통하여 더욱 철저하게 실천되었던 바 예컨대 死刑囚의 三覆審制, 地方官의 成績과 民情視察을 위한 撫問使制가 있었고 또한 崔承老의 儒敎에 기반을 둔 非佛的인 政治改革論理로서의 時務 28條에서는 佛敎와 風水說로 시들어 가는 高麗社會를 急進改革하여 國利民福을 增進하려는 活力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牧隱 李穡의 儒佛同化의 政治思想에서는 保守的인 改革方法으로 在來의 統治理念인 佛敎思想을 補強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君臣秩序를 義理로써 강조하는 朱子學을 導入採用하였는가 하면, 三峯 都道傳은 排佛崇儒의 革命的인 政治思想을 提唱하였다.

이와 같이 高麗期에서 거듭된 國難의 試鍊을 克服하는 데서 發現된 民族의 親和力과 花

郎精神의 行脈 그리고 外來文化受容에 있어서 文化的 主體性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社會正義를 實現하고 外壓에 抗拒하여 護國과 愛國의 一念으로 國民의 統合을 이룩하기 위한 社會改革의 精神이 發揮되고 또 民主的 傳統이 繼承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高麗時代에 傳承된 뚜렷한 民主的 傳統의 命脈과 그 社會의 背景을 살펴보고자 한다.

太祖는 新三國을 統一하고(936), 古代政治生理에 反발하는 急進의 群小호족들의 支援을 받아가면서 中世의인 儒敎政治理念을 표방하였으며, 이 政治理念에 입각하여 점차 中央集權의인 政治體制가 體系化되어 드디어 成宗 2年(983)에 이르러 三省六部官制의 정비를 보게 이르는 것이다. 高麗에서는 太祖 王建때부터 북방의 거란, 여진의 침입을 막으면서 이들과는 다른 文化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自負하는 의식을 가지고 善隣友好의 和유와 事大交隣의 外交政策을 수립·실천함으로써 후세에 계승되는 외교정책의 한 전통을 이룬 것이며, 한편 社會經濟의 토대의 변동은 민주적 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專制勢力에 對항하려는 여러가지 政策 수단으로 制度化되어 간 것이다.

社會體制面에서 新羅時代에 있어서는 7세대 통일 辰族집단이 基本단위가 되었던 것이 그 次족적 유다가 해체되면서 高麗初에는 5세대 통일 辰族집단으로 分열되면서 보다 民主적 政治체제의 改編을 促求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다 中央 및 地方을 통한 文武관료의 經濟的 實力의 成長, 승려세력의 政治參與, 武人閥族의 등장, 기타 척신과 文武權臣의 발호 등 諸般勢力의 多元의 분출은 民主的 社會基盤形成에 直接, 間接으로 寄與했던 것이다. 民主意識의 思考는 孟子도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하여 百姓이 가장 貴重하다고 하였던 바 이러한 民本主義的 思考는 天命思想이나, 有德爲王說과 같은 政治思想으로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體系的으로 정비된 高麗官制中에서 진계세력을 견제하는 민주적 裝置로서는 都堂制, 台諫制 또는 科擧制度, 科擧制度, 事審官制, 司憲臺一御史臺, 弘文館 및 取民有度의 收取制 등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麗朝의 專制勢力을 견제하는 民主的 遺風은 朝鮮王朝에 繼承되고 있는 것이다.

#### IV. 近世朝鮮朝의 精神文化

朝鮮朝 文化는 크게 建國부터 壬辰倭亂時까지의 初期와 後期の 英·正朝時代를 中心으로 하는 實學運動時期과 그리고 1860年代 以後의 西勢東漸과 開港以後의 近代化時期로 區分할 수 있겠다.

朝鮮朝 初期는 朱子學의 儒敎文化를 輸入 適用하며 이를 補強 反省하는 가운데 점차로 文化的 自主性을 意識하게 되는 時期에 해당하며 이 期期도 建國期와 補強期로 나누어 成宗(1494)까지의 建國期는 朱子學의 統治理念을 導入하고 適用해서 中央集權의 官人支配體制를



構築하고 整備한 時期에 해당하며 燕山朝初(1946)로부터 宣祖 인진왜란時(1592)까지의 補強期는 統治理念과 社會現實간의 괴리가 露呈되고 政治的·社會的·矛盾을 道學思想으로 補強하기 위한 修正 혹은 그에 대한 批判과 反省으로 朝鮮朝 文化的 自主的 轉換의 契機를 마련한 時期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는 朝鮮朝 初期의 儒敎政治文化的 特徵을 論하고 士林派 中에서 傳統政治文化的 維持·創造的 發展에 寄與한 바 크다고 생각되는 建國期 後期の 士林派 金宗直, 節義派 金時習 그리고 補強期 前期의 士林派 新進士類 趙光祖와 補強期 後期の 李滉 및 李珣 등의 思想的 特徵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實學派와 開化派 등의 思想展開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朝鮮朝 初期의 儒敎文化

朝鮮朝 政治의 基本性格을 特定지우는 것은 儒敎的 統治理念이었으며 그것은 첫째로 지배자의 合理的 善을 강조하는 유교의 爲民思想을 내포하고 둘째 지배자의 賢明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博詢採納의 收議形式을 취하고 있는 데 있다 하겠다. 즉 治者의 有德을 강조하면서 國家의 根本을 百姓에 두는 民本思想을 根據로 하는 前者의 爲民思想으로 인하여 身分的 階級社會 밑에서도 民衆은 政治過程에 間接的으로나마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後者의 形式에 의하여 政策決定過程에 治者의 獨斷을 피하기 위하여 言路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개방적인 言路와 決定作成에의 參加人員의 增大로 인한 政策決定過程의 기능적 개방성 내지 그 民主的 性格은 한편으로는 유교 그 자체의 展開 또는 變質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기도 하였으니 이와 같은 제약은 朝鮮王朝歷史의 展開와 함께 점차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즉 그 제약이란 儒學風이 治國論에서 思辯論으로 變質되어 유교적 政治敎養에 내포되었던 前記한 爲民思想이나 또는 言路開放과 같은 合理的 原理가 現實的인 實效性을 상실하게 된 데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다만 이와 같은 合理的 治國理論도 주로 在野의 士林들에 의하여 준봉되는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朝鮮王朝의 政策決定過程은 博詢採納에 의한 收議形式을 취하여 言路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으나 이는 물론 民權所在를 인식한 民主的 思想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天으로부터 委任을 받아 天下의 人民을 統治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소위 天子(또는 君子) 나아가서는 治者의 賢明을 保障하려는 儒敎的 政治倫理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儒敎的 政治原理는 治者의 善과 被治者의 幸福을 최대로 確保하려는 倫理性이 강하며 그것은 理論上 어느 정도 合理性을 토대로 하기에 朝鮮王朝의 儒敎的 政治過程은 다분히 合理的인 一面이 있었던 것이다.

즉 被治者의 幸福을 第一義的인 政治目標로서 尊重하는 爲民思想과 여기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治者의 倫理的 責任性은 言路를 개방하였으나 그 言路의 개방에 있어서 衆愚를 피

하기 위하여 收議의 범위를 당대의 엘리트인 士林階級에만 한정시켰던 점 등에서도 그 합리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初期 儒敎文化的 倫理的 精神이 廟堂制와 政府, 各 行政機關의 政策決定過程, 視聽와 經筵 言官三司의 政治參與와 牽制機能, 上疏制 및 示威 등의 여러 形態로 反映되어 古代 中世以來의 文化傳統 중에서도 爲民思想, 人本的 平等主義思想, 敬天敬愛思想 및 民主的 遺產 등의 脈絡이 繼承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士林派의 思想的 脈絡

士林派中에서도 金宗直 金時習 趙光祖 및 李滉 李珣 등은 各 時期의 思想을 代表한다고 볼 수 있겠다.

金宗直은 世祖 찬탈후의 倫理秩序를 바로 잡아 政治安定을 期하고 동시에 篡奪體制의 正當化를 위하여 仁政思想을 고취하였다.

그는 儒敎의 封建倫理的 政治思想을 採用하여 儒敎的 五倫을 바로 세울 때 四民이 각기 安分하게 되고 이러한 身分秩序와 倫理를 確立하기 위하여 庶民에 대한 「仁政」을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仁政論은 물론 治者의 立場에서 不安定한 君臣秩序를 확보하고 政治의 安定을 이룩하며 士林派의 政界進出을 피하려는데 政治的 意圖가 있었으나 이는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이 佛行心儒하면서 庶民의 立場에서 社會現實에 대한 批判, 新政權에 대한 不滿을 표시하고 農民의 利害를 대표하여 重民思想을 주장한 것과 對照가 된다 하겠다. 金時習은 反政權의 立場에서 財政을 批判 暴露하고 班常의 倫理秩序와 儒敎統治體制에 대한 批判的 思想과 農村慘狀에 대한 否定的 社會現實觀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가 「名分說」에서 「人間에게 있어 名分은 大原則이다…名이란 天子 諸侯 公卿 大夫 庶人 等 身分을 말한 것이고 分이란 上下 尊卑 貴賤等 身分間의 差別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身分上 差別을 是認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그는 庶民의 權益을 確保하고 重民을 具現하는 政治的 理想으로서 소위 「一氣」의 宇宙變遷論과 進化論的 歷史觀을 提唱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社會改革的 宇宙變遷論과 進化論의 立場에서 愛民과 無關한 天神祭, 鬼神의 存在, 風水說, 極樂地獄說 및 易의 占筮의 迷信 등을 일체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靜菴 趙光祖(1482~1519)의 道學 및 「衡平」政治思想의 命脈을 검토하면 그는 君主가 獨治를 하지 않고 大臣에게 政事를 맡긴 후야야 政治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하여 治者層內의 權力의 再分配를 위한 君臣關係의 秩序를 確立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武力政治를 反對하고 仁義政治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그의 封建體制下에서 王의 政治行態를 定立하려는 王道政治論으로서 특히 그의 道學政治思想이라고 理解될 수 있다.

그는 孟子의 王道政治論을 「衡平」政治思想으로 修正하고 王과 官人貴族간의 權力均衡을

促求하고 있는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특히 그는 百姓을 위한 民本의 政治思想을 강조하고 「天和 人은 본래 하나(一)이기에 君도 民에게 그 道가 없을 수 없다. … 무릇 君臣이란 것은 爲民 때문에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上下가 이 뜻을 알아차려 밤낮으로 百姓들로서 자기 마음을 삼을 때 비로소 政治의 道는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그의 「衡平」은 본질적으로 治者和 被治者間的 平等을 意味한 것이 아니고 新進士類와 既成士類間 貴族內部的 勢力均衡을 주장함으로써 自派勢力的 權益擴張을 企圖한 점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그가 道學政治論에 의거한 많은 理想主義的 制度改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執權 勳舊勢力的 反擊을 받아 挫折되어 除去당하는 原因이 되기도 한 것이다.

다음 退溪 李滉(1501~1570)은 儒敎的 官人支配體制가 지닌 矛盾과 不條理를 正面으로 問題삼기보다는 現實的 脆弱性을 補完하려는 立場에서 그의 樂觀的인 社會現實觀과 中央集權體制 및 倫理強化의 政治思想 그리고 이러한 政治觀을 뒷받침하는 理氣說이란 宇宙變遷論과 人性論 등을 提唱하였다.

우선 退溪는 理氣說과 人性論을 展開하는데 그의 理氣說은 趙光祖 등 道學的 政治理論을 補強하면서 그 自身の 宇宙變遷觀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退溪는 「天地之間에 有理有氣한다」고 함으로써 貴庶의 共在와 理氣의 共在關係를 是認하고 存在論的으로는 理氣二元論을 生成論上으로는 理氣互發說을 提示하면서 理없이 氣가 存立할 根據가 없는 것 같이 現實政治上的 身分秩序는 不可避한 當爲라고 規定함으로써 官人政治體制를 合理化시키고 있다. 또 그는 人性論에서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을 구별하고 本然之性은 各等하지만 氣質之性으로 現實的 差別이 있게 되며 清濁의 濃度에 따라 貴族(上智) 中人 奴隸(下愚)로 3等別하였다.

以上에서 論及한 退溪의 朱子學的 修正論에 對하여 內外的 危機狀況을 自覺하고 그 克服을 위한 社會改編의 思想을 제창한 代表의 人物이 곧 栗谷 李珥이었다.

栗谷 李珥(1536~1584)는 安民을 바탕으로 貴族이 아니라, 百姓의 立場에서 社會現實을 批判하고 그의 救國 및 安民의 政治思想과 政策論을 提示하였다.

그의 政策論은 貴族官人支配體制的 補強을 위한 修正이 아니라 保國安民을 위한 社會改編論이었으며 이러한 見地에서 그의 思想은 後世에 대두한 實學運動의 先驅的 役割을 한 것이었다

栗谷은 退溪와 같이 倫理秩序의 確立을 政治目標로 삼고 三綱五倫을 不變의 統治規範으로 認定하면서도 被治者의 立場에서 庶民個體의 自存과 10萬養兵을 통한 韓民族個體의 保衛를 위하여 理論과 政策을 展開하고 있는 點에 그 特徵이 있다 하겠다.

栗谷은 獨創的인 제 3의 學說로서 「理通氣局」說 즉 氣發理乘說을 主唱하였던 바 여기서 理通氣局은 곧 個人 및 個個民族이 그 形態面에서 特殊性을 가졌으나 自存的 「理」를 가지고

있음으로 何體中心의 安民과 民族의 主體性을 確保하기 위한 政策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暗示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栗谷은 國家體制의 根本的 改革이 無數한 挑戰에 直面할 것을 自意識하였기 때문에 體制의 漸進的 方向轉換을 志向하고 道德政策에 있어서는 王 貴族 庶 奴間의 差別的 倫理 規範을 是正하여 社會階層間의 大同團結을 促求하였던 것으로 본다.

또 栗谷이 儒敎的 官人支配體制의 矛盾과 危機를 直視하고 朱子儒學을 비롯한 中國의 政治思想의 虛偽性을 銳利하게 解剖하여 經驗的 實證主義의 立場에서 展開한 獨創的인 主體的 政治論은 그의 國是論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즉 『公論은 「人心」이 모두 그러하다고 同意하는 내용이다. 바로 이 같은 公論이 所在하는 곳에서 國是는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國是는 온 나라 안 사람들이 苛함이 없이도 나 같이 옳다고 同議 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國是論은 16世紀 士林들을 통하여 政治文化의 民主的 傳統으로서 우리 政治思想史속 에 萬民의 同意를 강조하는 政治傳統으로서 繼承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 論述한 士林派 諸學者의 政治思想에서도 우리의 親和思想, 愛民思想, 人本的 平等主義思想, 改革思想 및 民主的 遺産 등 古來의 傳統的 政治思想의 命脈이 흐르고 그것들이 時代와 社會의 變遷에 따라 再創造되고 發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3. 實學派의 思想

壬亂以後 17, 18世紀에 걸쳐 朝鮮朝의 政治·經濟·社會 등 모든 環境의 狀況은 크게 변동하여 統治體制는 그 正統性의 基盤을 상실하고 無能力을 露呈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社會狀況下에서 社會의 全面的인 改編없이 國勢를 만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여기서 在野學者들 사이에서는 經世濟民을 重視하여 社會現實을 批判하고 理想的 社會改編을 위한 그들의 理論을 활발히 展開시키기에 이르렀고 일부 官僚層(예컨대 李元翼(1547~1634)이나 金堉(1580~1658) 등의 大同法實施運動)에 있어서도 시제를 거론하여 匡救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당시 民衆의 慘狀을 直視하는 가운데 個體自存意識 人間意識 또는 平等意識을 覺醒하게 하고 經濟的 價値와 現實的 實利를 追求하는 學究的 努力도 대두했던 것이다.

따라서 新學風으로서의 實學의 擡頭는 知識의 擴大나 天主教를 비롯한 科學과 技術 등 西洋文化와 淸朝의 新學風의 影響으로 인한 學問的인 反省이 큰 契機가 되었음을 看過할 수 없겠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절박한 社會現實에 결부된 自主的 政治意識의 발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社會改編理論으로서 發展的인 性格을 內包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社會保存 또는 適應意識으로서의 復古的인 性格과 연결된다. 前者의 성격은 改革的 精神으로 社會改革을 提唱한 당시 南人學者나 中人 및 庶民 등 소위 限界人物들에 의한

實學理論에 內包되어 있으며 後者의 성격은 民族的인 主體性과 결부되어 自主意識을 再創造하려 國學派 實學理論에서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新學風 成立의 共通의 精神基盤은 自主性·科學性·現實性 또는 實用性과 合理性 등으로 要約될 수 있겠으며 이들 諸要因이 西歐文化의 基底와 相通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實學派는 크게 百科辭典派와 國學派 및 北學派등 3個學派로 구분할 수 있다. 百科辭典派는 重農主義學派로 알려지고 重農思想에 입각한 經世致用으로서 天文, 地理, 土地制度 官制 學制 등 廣範한 社會制度改編案 또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는 데 特徵이 있었으며 이들의 思想과 學風은 後日의 國學이나 北學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北學派는 技術導入論을 中心으로 하는 重商主義的 產業論을 提起하고 利用厚生을 強調하였으니 이들 兩大 主流 外에 또 하나의 刮目할 만한 傾向은 學問의 對象과 關心을 韓國 自體에 돌린 自主的이고 主體的인 學究傾向으로서 이른바 國學派이었다.

實證主義思潮와 歷史意識의 高潮를 契機로 李瀾의 批判的이며 自主的인 韓國史의 體系化가 提起된 以來로 安鼎福(1792~1791)의 東史綱目(1790)은 종래까지의 中華的 世界觀이나 中國中心의 植民地史觀에서 벗어나 韓國史 自體의 正統性과 獨自性 위에서 主體史觀을 體系化하였다. 아울러 地理, 疆域圖, 語文分野에서도 文化的 自我意識의 覺醒을 엿볼 수 있다.

實學이 있어서 이와 같은 國學的 自覺은 李瀾, 安鼎福, 丁若鏞으로 연결되는 學淵이 그 中心을 이루었고 近畿의 重農主義實學派가 그 主流를 形成하였다.

한편 鄆市中心의 重商主義的 實學派인 北學派도 그 궁극적 目的이 淸朝의 讚揚이 아니라 朝鮮朝 그 自體의 活路開拓이었다는 點에서 北學의 精神도 결국은 國學的 潮流에 合致하는 것이었다.

이러하여 國學的 自主 歷史意識은 韓民族의 民族的 個別性을 確認시키기 위한 過程으로서 個別民族의 自主性을 基盤으로하는 近代精神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近代化의 意識的 努力이 순조롭게 계속되어 結實을 보지 못하였기에 韓國의 近代化도 그만큼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V. 開港以後의 精神文化의 展開

19世紀 西歐 帝國主義國家들의 西勢東漸에 의하여 1840年 淸이 開港을 했고 다시 1854年 美國의 炮艦外交에 따라 日本이 開港을 한데 뒤이어 歐美列強의 朝鮮侵入이 자행되고 閔氏 政權下에서 政治的 압력과 思想的 갈등, 거기다가 社會經濟的인 矛盾이 격화되는 가운데 明治維新으로 近代 帝國主義 國家로 변모한 日本이 1875年 雲揚號事件을 일으키고 武力的 威脅을 가하면서 1876年 不平等하고 片務的인 丙子修好條約(朝·日修好條規)을 체결케 했다. 이 修好條約으로 朝鮮王朝 500年間의 傳統的 外交秩序였던 事大交隣에서 벗어나 처음

으로 西歐의 秩序에 參與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韓國史의 歷史進行過程에서 近代意識의 成長過程의 與否보다도 近代的 西歐秩序와의 最初の 制度化된 접촉이었고 또 最初로 겪어야 했던 西歐의 近代와의 對決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韓民族은 歷史上 最初로 歐美와 만나면서도 實質上 직접 그들과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文明圈인 中國, 日本을 통해서 특히 日本과의 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韓民族은 近代를 체험하면서 自己의 體質을 歐美만이 아니라 같은 文明圈의 日本과의 사이에서도 조절해야 하는 무거운 二重負擔을 짊어져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韓國이 近代로 指向하고자 했던 모든 內容과 性格이 中國이나 日本을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좁아지고 變質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開港을 前後로 한 韓國의 政治文化 現實은 근본적으로 主體性的 危機를 안고 출발하였고 開港 自體는 韓國近代化의 契機를 여겨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체적인 近代化를 실천해 주지 못한 채 결국은 日本帝國主義의 경제적 浸透와 政治的 干涉속에 主權이 상실당하는 불행한 近代史가 進行되던 것이다

그러나, ○와 같은 試鍊期에 있어서 우리 民族은 外勢의 挑戰만을 묵시하지 않은 채 안으로 主體적인 活力을 기르면서 主權을 위한 自主와 開化 또는 進歩를 指向한 꾸준한 努力이 展開되었던 것도 목과할 수 없다.

開港을 前後하여 朝鮮社會에 나타났던 思想의 큰 흐름은 衛正斥邪論, 開化思想, 西學思想, 東學思想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들 思想중 西學思想을 제외하고는 外勢의 物理的인 挑戰에 對處하여 民族의 主體性과 國家의 保全을 위한 民族運動으로 昇華되었다는데 異論의 餘地가 없다고 하겠다. 衛正斥邪論은 「正學을 지키고 邪學을 물리친다」는 이론에서 출발하여 開港前後 西洋文物의 浸透를 물리친다는 것이었다. 이 思想의 原流는 儒學者 華西 李恒老로서 그는 西學을 「無君無父邪術」로 단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開港前後의 衛正斥邪論은 대체적으로 4段階로 發展되었으며 그 첫째가 1876年 丙寅斥邪로 天主教 傳來와 같이 西歐의 壓力이 일종의 文化的인 優越의 形態로 밀려오던 시기에 自己文化의 순결(吾道 등)과 自己基礎社會(宗社, 吾黨 등)를 지키고 關關思想과 斥和攘夷를 주장하였다. 丙寅斥邪는 洋擾에 의하여 더욱더 굳어져 李恒老의 洋物排擊論에서 출발하여 奇正鎭의 洋物絶斷論 및 金平默의 禦洋論으로까지 發展하였다. 둘째 단계는 丙子斥邪로 1876年 開港에 즈음하여 日帝의 강요에 의한 不平等條約에 對항 開港의 不可를 내세우고 斥倭斥洋이나 倭洋體論을 주장하였으나 대표적인 理論이 崔益鉉의 五不可疏였다. 셋째 단계는 開港後 밀려오는 外勢를 막고 主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國家가 實施하고 있는 開化政策에 反旗를 든 辛巳斥邪(1881)이다. 이때의 斥邪論은 「朝鮮策略」의 문제를 항의한 李萬孫 등의 嶺南萬人疏였다. 넷째 단계는 1895년의 乙未斥邪로 이 때부터는 衛正斥邪의 理論만을 가지고

는 나라의 민족을 구할 수 없으며 日本帝國主義라는 표적을 향하여 擧義討賊의 旗幟 아래 직접 武力行動인 義兵運動으로 발전하여 이후 衛正斥邪論은 韓末 義兵運動과 日帝強占期 抗日武裝運動의 精神的 支柱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開化思想은 文明開化를 主眼으로 하여 19世紀 西歐勢力的 浸透라는 危機意識과 17世紀 以後부터 朝鮮社會內에서 싹트기 시작한 實學의 發展을 契機로 배태된 이론이었다. 그리하여 開化論은 그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하는 바가 달랐으니 첫째, 1870年代의 開化思想은 開國論에 그 思想的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즉 開港을 前後로 하여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국가를 發展시키려면 門戶를 開放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代表的인 人物들은 朴珪壽, 吳慶錫, 劉大致, 李東仁 등 開化思想의 선구자들이었다.

둘째, 1880年代의 開化論者들의 思想的 主眼點은 富國強兵論에 있었다. 1870年代의 開化先覺者의 뒤를 이어 80年代에 들어오면서 開化思想은 그 體系가 둘로 나뉘어지니 穩建開化派(守舊黨, 事大黨)와 急進開化派(開化黨, 獨立黨)로 나타났다. 前者는 朝鮮社會를 점진적으로 開化하고자 한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淸의 自強洋務運動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즉 儒敎思想을 고수하면서 西洋의 器(기술)만을 수용하자는 東道西器論이 주류였으며 西洋技術을 수용하여 富國強兵과 開化 또는 文明化를 추진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國權, 王權을 절대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開化를 추진시켰으며 그 대표적 인물이 金允植, 魚允中, 閔永翊들이었다. 後者는 朝鮮社會를 日本의 明治維新과 같이 急進적으로 개화시키고자 한 小壯官僚層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日本의 文明開化論에 입각하여 兩班社會秩序를 改革하여 民權에 의한 국가발전을 주장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물이 金玉均, 朴永孝, 洪英植, 徐光範 등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1884년 甲申政變으로 한때 政權을 장악, 그들의 理想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三日天下로 끝나면서 좌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뒷날 이들의 開化運動은 1890年代 民權, 國權論으로 발전하여 1896년 獨立協會가 조직되면서 獨立自強運動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開港前後 韓國思想界는 衛正斥邪와 開化思想의 兩極을 주축으로 하여 展開되었으나 한가지 共通點은 國家와 民族을 구하고 富國強兵하여야겠다는 點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그 方法에 있어서 儒敎의 秩序속에서 既存社會體制를 고수하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衛正斥邪라고 한다면 開化思想은 開港을 통하여 西歐文物의 수용속에서 西歐와 같은 近代國家로 志向하여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開港前 內外의 危機意識이 점고되는 가운데 나타난 東學思想은 人乃天은 근본으로 하여 事人如天하고 後天開闢을 中心하여 民族宗教로 승화 발전하여 갔다. 人間中心, 平等思想의 東學은 兩班階級에 억눌려 있었던 農民에게는 福音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貪官汚吏에게 수탈당할 대로 당하여 農村經濟가 파탄에 이르러 궁핍과 고통에 허덕이던 農民에게 새

세계가 도래한다는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94年 東學運動과 같이 朝鮮王朝 儒敎秩序에 대한 反封建의인 抵抗運動이요, 日帝侵略에 대한 民族的 武力抗爭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 VI. 日帝植民統治下の 傳統文化的의 試鍊과 解放後의 展開

韓末의 近代化過程에서 傳統民族文化의 주요한 系譜를 形成하였던 衛正斥邪思想, 開化思想, 東學思想 및 西學思想 등은 日帝植民統治上の 가혹한 民族文化抹殺政策으로 갖은 抑壓을 받는 가운데 斷絶의 危機를 克服하면서 강인한 民族運動의 理念的 基底로서 그 命脈을 이어왔던 것이다. 韓末에 近代化를 指向하던 自主와 進歩, 抵抗과 創造의 活力이 가장 緊密적으로 結合하여 나타났던 代議民族運動이 바로 三·一運動이었던 것이다.

우선 韓末의 儒林이 중심이 된 衛正斥邪運動은 日帝의 武力侵略에 對하여 義兵運動을 展開하였고 또는 金昌淑, 郭鍾錫 등이 중심이 되어 改新儒敎로서 儒敎維新論을 提唱하기도 하였다. 東學思想은 天道敎로서 組織化되어 民族運動으로 昇華되었으며 3·1獨立運動에서는 主導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韓末의 開化思想은 西學과 統合하여 3·1獨立運動과 上海臨時政府 憲法의 理念的 基礎가 되었으며, 臨政憲法의 民主共知制나 民權思想 또는 三均主義 등은 西學과 孫文의 三民主義의 影響을 받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西學의 一部로서 改新派 基督教은 3·1運動의 指導의 역할과 民間 私立學園 建立을 통한 教育事業 또는 醫療事業에 공헌을 하였을 뿐더러 日帝下에서 神社參拜를 반대하는 民族運動을 主導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朝鮮朝의 崇儒排佛政策下에서 民間信仰으로서 그 命脈이 繼續되었고 또 당대의 佛敎思想家들에 의한 儒佛融和論으로 그 復興이 試圖되기도 했던 朝鮮朝 佛敎은 日帝下에서 分裂政策으로 比丘僧과 帶妻僧으로 對立 嫉視하는 가운데 衰退했으나 庶民信仰으로서 基盤을 지탱해 왔으며, 또한 傳統的인 護國佛敎精神을 繼承하여 3·1獨立運動을 지도하고 나아가서 萬海 韓龍雲의 佛敎維新論이 提唱되기도 했다.

끝으로, 1910年代에는 檀君을 敎祖로 모시는 大倮敎가 羅喆을 敎主로 대두하여 民族運動(臨政要人 羅東寧등)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滿州地方의 獨立運動(羅喆)을 비롯한 民族運動을 지도하였다.

以上 命脈을 유지해 온 傳統文化的의 諸系譜는 해방이 되고 國土分斷下에서 大韓民國政府가 탄생 운인 되는 새로운 소용돌이의 環境下에서 각기의 適應性에 따라 盛衰의 振幅을 달리하면서 展開되었다.

우선 韓國의 民主主義文化는 韓國의 傳統的인 民主的 遺產을 基盤으로 韓末의 開化思想 및 西學의 導入 및 日帝下의 3·1民族運動과 臨政의 近代 民主精神 그리고 解放後의 大韓民國의 建國과 民主政府 및 憲法經驗을 통하여 繼承發展되고 定着化하는 過程에 있으며 다음 基



敎育文化는 新舊敎를 막론하고 解放後 그 敎勢를 대폭 擴大할 수 있는 有利한 條件下에서 現代 韓國人의 精神生活의 貧困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만 普遍的인 主體의 視座와 調和시키는 課題를 남기고 있다 하겠다.

다음, 佛敎는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傳統的 庶民信仰으로서 오늘날 韓國精神文化의 한 支柱를 形成하여 그 基盤을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儒敎 또한 傳統精神文化의 支柱로서 既成年齡階層의 國民精神生活의 深層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그 現代化의 適應이 促求되고 있다. 이밖에 天道敎와 大倭敎등의 主體性이 강조되는 傳統精神文化가 차지하는 比重이 看過할 수 없으며 아울러 民間新興宗教로서 傳統的인 理想主義理念의 命脈을 계승한 甌山敎, 圓佛敎, 한걸敎등의 信仰과 그 布敎도 注目이 된다.

## VII. 結 論

앞에서 우리는 韓國精神文化의 歷史的 展開過程에 있어서 各 時代別로 韓國의 傳統文化속의 本質的 要因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들이 縱的 命脈을 이루며 어떻게 연속되어 왔으며, 또 때로는 斷絶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如何히 時代性과 社會性의 規制를 받아 가면서 連綿히 繼承되어 왔는가를 概略的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韓國의 原始古代社會나 中世高麗社會, 近世朝鮮社會 그리고 日帝時代와 解放後를 통하여 西歐文化와의 대조가 되는 個性이 뚜렷하고 創意性이 있는 韓國精神文化의 歷史的 命脈을 더듬어 보았다.

과거 역사상의 諸事件이나 文獻을 통해서 우리는 血緣共同體의 親和大同의 屬性이 基底를 이루는 韓國人의 個性의 屬性으로서 우선 正義를 追求하려는 潔白한 성벽이 뚜렷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家父長的 權威主義와 敬天敬愛의 思想및 爲民思想과 人本主義의 平等思想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개인 또는 국가생활에 있어 根本志向의 正義意識을 바탕으로 하는 花郎精神, 선비精神, 忠孝思想 또는 集團志向의 忠誠과 化家爲國의인 國家意識 등이 전통적 精神文化의 底流를 이루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그리고 韓國文化의 展開에 있어서는 古來로 對外的으로는 自主性과 主體性을 守護하는 한편 友邦隣國에 대하여는 國際, 平和主義를 지향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進歩와 改革을 追求하고 나아가서는 自由와 抵抗의 精神이 뿌리깊이 潛在하여 國家發展의 活力素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世界속의 韓民族이 언제나 文化民族으로서 그 主體性을 부각시키고 있는 基本原因은 外來의 普遍性이 짙은 文化를 受容하여 우리나라의 文化와 實情에 맞게 再創造하여 土着化시키고 昇華 發展시키는 融和精神과 文化創造能力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적어도 우리는 韓國精神文化의 創造的 實踐으로 世界文化가 새로운 뜻을 더함과 아울러 보다 풍요로운 內容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날 韓民族은 우리가 直面한 現實과 激變

하는 國際 政治 狀況 속에서 그 歷史的 課業들을 推進하기 위하여 傳統속에 民族의 슬기와 精神文化의 연속적 命脈을 오늘에 되살려 民族發展의 活力素로서 再創造할 것이 促求되고 있다고 하였다.